

보도일시 (인터넷) 2026. 6. 28.(일) 11:00
 (지면) 2026. 6. 29.(월) 조간

배포 2026. 6. 26.(금) 오후

한·중·일·대만, 극동산 민물장어 자원 보존을 위한 정부 간 협의회 개최

- 제19차 동북아국가 협의회(6. 29.~6. 30.) 참석 및 자원관리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29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민물장어 자원 보존을 위한 동북아국가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극동산 민물장어의 주요 생산·소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대만) 간 실패장어 자원관리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3년마다 열리는 CITES* 당사국총회 등 민물장어의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논의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간 회의에 앞서, 각국의 연구자가 모여 실패장어 자원량 연구 방법론 및 결과를 논의하는 과학회의(6. 25~6. 26.)가 진행되었으며, 과학회의의 결과는 정부 간 회의에서 검토·논의되고 최종 채택된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과학회의에는 우리나라 국립수산물과학원 연구자들을 비롯한 각국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실패장어 자원관리 연구 결과 발표, 각국의 보존 조치에 관한 상호 자문, 극동산 뱀장어 유전자 식별 기술 공유 등을 거쳐 제5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정부 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2026년도 민물장어 통계 분석, 보존관리를 위한 각국 정책 검토, 제21차 CITES 당사국총회 (CoP20, 2028. 11.)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 열린 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 전체 민물장어 종의 CITES 부속서 II 등재를 막은 성과도 이 협의회를 통해 과학적 논거들을 마련하고, 인접 국가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물장어 양식업계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민물장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민물장어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이번 협의회를 통해 입장을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협력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실뱀장어는 국내 내수면 양식산업의 핵심 자원인 만큼 CITES 부속서 II 재(再)등재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업계, 전문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뱀장어 입식량 할당제도 도입, 인공 종자 개발연구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1-773-5630)
		담당자	사무관	최은석	(051-773-5684)